

工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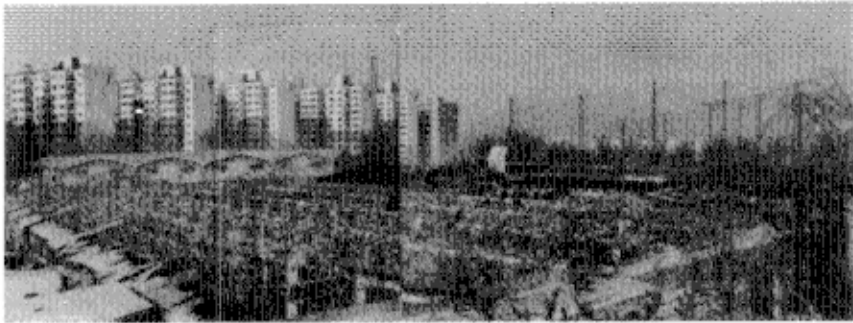
(D企業(株)
서울毛紡工場 火災)

漏電에 의한 纖維工場の
大火

1979. 12. 19

— 눈에 보이지 않는 電氣...쓰기에 便利하지만
技術的으로 管理해야—

死亡 1名, 財産被害 約 28億원(動産 不包含)



화재후의 공장 전경 — 저멀리 「아파트」群이 보이고 철골 지붕틀의 잔해만이 앙상하다.



화재후의 공장 내부. — 고철로 변해버린 정방기의 이재상태

● 一般事項

建物用途：織物工場
所在地：서울特別市 冠岳區
火災日時：1979. 12. 19, 07:55~13:30
發火位置：本工場 A區劃과 B區劃 사이 天井
火災原因：漏電

● 工場概要

袋地 42,900m², 18個棟 總延面積 21,780m². 火災가 發生한 本工場(A, B, C, D棟으로 區劃된 1個棟의 建物로 D棟만 2層은 철근「콘크리트」造 철골「트러스」위 「스페트」지붕 建物로 9,115m². 主生産品은 「아크릴」原絲 및 「스웨터」, 從業員 500여명, 紡績施設 15,000錠, 25,000 lb/day의 生産能力을 갖고있는 大規模 纖維工場.

● 火災狀況

火災當日 作業은 06:00시부터 시작되었는 데 07:55시경 本工場 A棟과 B棟사이의 天井에서 갑자기 불길이 새어나오는 것을 女從業員이 目擊, 即時 現場主任에게 알리고 다시와 보니 불길은 이미 合板으로 되어있는 天井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으며 주위의 종업원들과 함께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워낙 확산속도가 빨랐고 또 공장내에 收納되어 있던 다량의 化學絲 등의 原資材, 在工品 및 製品 등으로 이미 火災이 傳播되어 이의 燃燒로 인한 有毒「가스」의 發生으로 더이상 工場內에 머물 수가 없어 全從業員을 待避시켰다. 火災發生 10여분이 지난뒤 신고를 받은 消防隊가 到着했으며 60여대의 소방차가 동원되었으나 이미 A, B棟 工場 전체로 火災가 擴散되고 有毒「가스」가 多量 噴出되어 접근조차 곤란하여 진화작업을 못하고 인접건물로의 확대방지에 注力하였다.

火災는 4시간 반이나 계속된 후 13:30시경 鎮火되었는데 진화후 工場 出入口 근처에서 청소원(60세, 남) 1명이 燒死體로 發見되었다. 火因은 漏電에 의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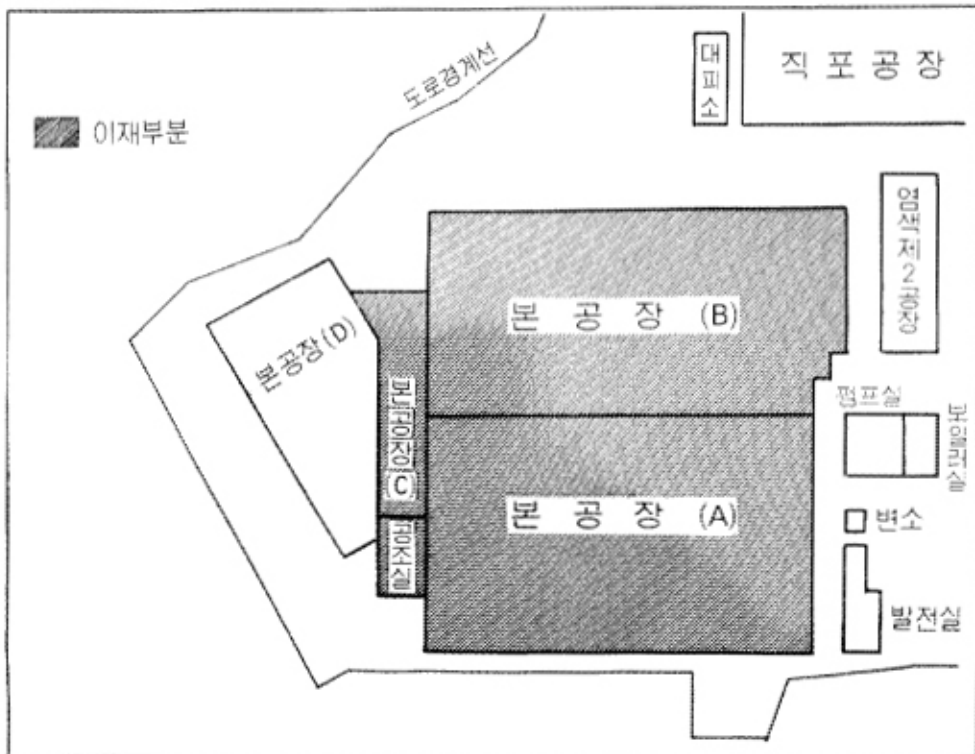
● 被害狀況

人命被害：死亡 1名
工場內에 있던 從業員 1名(60세, 男)이 미처 피난하지 못하고 老弱者였으므로 有毒「가스」에 질식된후 燒死하였다.
財産被害：약 28억원(기계시설 약 22억원 포함, 動産 不包含)

● 問題點

1. 電氣施設 管理 不良
● 電氣「에너지」는 供給과 使用이 편리한 反面, 「에너지」의 移動이나 使用狀態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관리가 소홀하기 쉽고 專門家라야 管理할 수 있는 特性이 있다. 따라서 電線의 老朽, 可燃物과의 離隔, 電氣施設과 電氣器機의 異常 有無 및 漏電與否를 週期的으로 點檢하는 등 管理에 徹底를 기해야 함.

2. 防火區劃, 排煙 및 排熱設備의 未設置 및 多量의 可燃性 內粧材와 收納物.
 - 火災가 發生한 本工場은 9,000m²가 넘는 1개의 건물로서 A, B, C, D棟으로 用途上 區劃이 되어 있었을 뿐 防火區劃이 되어있지 않았었고 建物 거의 全体에 設置된 可燃性 天井合板, 化學絲 등 多量의 收納原資材가 燃焼時 發生한 有毒가스와 強한 熱氣에 對處할 수 있는 排煙 및 排熱設備가 設置되어 있지않아 火災가 全建物에 쉽게 擴大되었고 消火活動이 困難했음.
3. 消防施設의 未備 및 消防訓練의 不足
 - 屋內·外消火栓조차 使用하지 못한 것은 消防施設이 不良하였을 뿐만 아니라 消防訓練 不足에 起因한 것이었다. 비록 法定施設은 아니나 「스프링클러」 設備과 같은 自動消火設備의 設置가 必要했음.
5. 老弱者 避難于先의 原則 不履行(老從業員이 窒息燒死하였음)
 - 火災時 人命被害는 煙氣 등 有毒「가스」에 一次的으로 窒息한 후 火災에 燒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린이, 老人, 病弱者, 身體障礙者 등은 「先避難을 하도록 하여야 함.



본공장 평면도<이재 부분>